

5급공채 | 외교관후보자 | 지역인재 | 민간경력자

# 신헌 자료해석 기초입문 강의

## PSAT 개요 및 공부방법론

강사 : 배 승 철

**목 차**

**제1부 PSAT 개요 및 영역별 특성**

I. PSAT 개요	3
II. PSAT 영역별 특성	4

**제2부 PSAT 문제해결 과정 및 공부법**

I. PSAT 문제 구조	9
II. PSAT 문제해결 과정	11
III. PSAT 정복 단계	21
IV. PSAT 정복 단계별 공부법	25

# 제 1 부 PSAT 개요 및 영역별 특성

## I. PSAT 개요<sup>1)</sup>

### 1. 도입배경 및 정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급속한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공직과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의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공직에서 필요로 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선발방식인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 PSAT)**가 도입되었다.

PSAT는 특정 과목에 대한 전문지식의 성취도 검사를 지양하고 신입 관리자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자질 등을 측정**하기 위해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 자료의 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 PSAT 개요

- ※ 시험 취지
  - 기본 소양 및 자질 등을 측정
  -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 평가
  - 자료 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평가
  -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평가
- ※ 평가 영역
  -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 2. 평가 영역

- 1) **언어논리** : 문장의 구성 및 이해능력,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 추론능력
- 2) **자료해석** : 통계처리 및 해석능력, 수치자료의 정리 및 분석능력, 정보화능력
- 3) **상황판단** : 상황의 이해능력, 추론 및 분석능력, 문제해결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 3. 시험 구성

- 1) 5급 공채, 국립외교원, 입법고시, 7급 지역인재 등

영역	문항수	시간	배점
언어논리	40문항	90분	100점
자료해석	40문항	90분	100점
상황판단	40문항	90분	100점

- 2) 7급 공채(2021년부터 시행 예정),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영역	문항수	시간	배점
언어논리	25문항	60분	100점
자료해석	25문항	60분	100점
상황판단	25문항	60분	100점

### 4. 출제 방향

특정 과목에 대한 전문지식의 성취도 평가가 아니라 신입 관리자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자질의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여 해결 가능한 문제는 지양하고,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사고를 요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한다.

### 5. 수험 준비

PSAT는 기존의 과목별 평가와는 달리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암기와 지식습득 위주의 단기간의 수험 준비 훈련을 통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평상시에 **폭넓은 독서와 토론** 등을 통하여 주어진 문제나 상황을 정확히 **이해·비판**하고 각종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나 관련 기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이슈, 사건의 원인 및 성격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험 준비를 해야 한다.

1) 중앙인사위원회, 「공직적격성평가(PSAT) 준비 안내」, 2005년 6월.

영역의 특징

- 문장의 구성 및 이해능력
- 논리적 사고력
- 표현력
- 추론능력

학습 방법

1. 풍부한 독서
2. 생각 표현하기, 요약, 고쳐쓰기
3. 주제 및 전제 추정, 논리학 공부
4. 내용 및 논리적 연관관계 파악

II. PSAT 영역별 특성<sup>2)</sup>

1. 언어논리 영역

1) 영역의 특징

언어논리 영역은 **문장의 구성 및 이해능력,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 추론능력** 등을 측정한다. 언어논리 영역은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므로 어휘력을 평가하거나 문법적 지식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은 출제하지 않는다.

2) 문제의 소재

특정 학문 전공자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지문의 소재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에서 골고루 사용**한다. 공직자에게 권할 만한 **좋은 책이나 여러 분야의 교양 도서**를 비롯하여 **서신, 광고·홍보, 지시·설명, 비공식 대화, 토론 등 실용적인 글**도 지문으로 이용한다. **대학교양 수준**의 지문을 사용하되, 교양 수준을 넘는 **전문 개념**이 사용된 경우에는 수험생이 개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각주 등을 사용**한다.

3) 주요 평가항목

평가항목	측정내용
문장의 구성 및 이해능력	제시된 글의 주요 부분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즉, 글 속에 제시된 저자의 핵심 주장이나 논지 등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표현력	글의 재료를 수집, 선정하여 개요를 구성하고 문단을 조직화하며, 고쳐쓰기를 통해 글을 완성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추론능력	제시된 글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즉, 글 속에 담겨진 경향·추세 등을 파악한 후 예상되는 결론(원인, 결과)을 찾거나 드러나 있지 않은 전제를 찾아내는 능력을 측정한다.
논리적 사고력	제시된 글에 들어 있는 논증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논증의 설득력을 타당성이나 일관성, 적절성 등에 따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4) 학습 방법

PSAT는 종래 과목별 평가와 달리 특정 시험과목이나 해당 학문분야가 없다. 따라서 기존의 시험처럼 효과적 수험방법을 과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아래의 항목별 기본 학습방법을 참작하여 준비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문장의 구성 및 이해능력’** 항목에서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는지 측정한다. 이를 위하여 수험생들은 평소 **풍부한 독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글을 접하는 것이 좋다. 대학의 기본교양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표현력’** 항목에서는 **글을 쓰는 기본 능력**을 지녔는지 측정한다. 공직자로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는 보고서 작성**이다. 이를 위하여 평소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훈련**을 쌓는 것이 좋으며,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간단히 **요약**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그 글을 새로 **고쳐쓰는 훈련**을 해두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추론능력’** 항목에서는 **주어진 글에서 새로운 정보를 논리적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는지 측정한다. 논리적으로 서술된 다양한 글(논문, 고전 및 양서, 일반 교양서적 등)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바를 추정**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 등을 추정**하는 훈련을 쌓는 것이 좋다. 필요하다면 **교양수준의 논리학 교재를 일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에 호소하는 오류’, ‘삼단논법’ 등 논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논리적 사고력’** 항목에서는 **글의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 글의 논증을 적절히 평가할 능력**이 있는지 측정한다. 이를 위해 일상적으로 접하는 **글을 꼼꼼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글을 이루는 **각 부분의 내용상 연관 관계와 논리적 연관 관계**를 따지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훈련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된다.

2) 중앙인사위원회, 「공직적격성평가(PSAT) 준비 안내」, 2005년 6월.

2. 자료해석 영역

1) 영역의 특징

자료해석 영역은 **자료를 수집·분석·정리**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론**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일반적 학습 능력으로서의 자료해석 능력은 수치, 도표, 그림 등의 자료를 정리하는 **기초통계능력, 수 처리 능력, 수학적 추리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치자료의 정리 및 분석 등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능력이다.

수치자료 처리 능력은 언어 능력과 더불어 일반 적성을 구성하는 주요 영역으로 대부분의 학업 적성 검사와 직무 적성 검사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PSAT 자료해석 영역에서는 **일반 적성검사보다는 좀 더 복잡한 수준**으로 출제된다.

2) 문제의 소재

자료해석 영역의 문항 소재는 분야가 제한되지 않으며, **모든 분야의 자료들이 출제**될 수 있다. 특히 경제, 경영, 심리, 교육학과 같은 사회과학으로부터 물리, 화학, 생물, 천문학과 같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시사적 자료 등도 사용된다.

자료해석 영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표**(GDP, 기업재고, 실업급여 청구율, 시청률) 또는 **지수**(주가지수, 지능지수, 소비자 평가지수)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며 **통계치**(빈도, 백분율, 상관계수 등)를 이용한 문제 역시 출제된다. 그러나 지수나 지표 혹은 통계치 그 자체의 개념이나 정의를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출처에서 발췌하기도 한다.

- **정부(외국정부)**에서 발표하는 모든 통계표 및 도표
-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통계표 및 도표
- **비정부기구(NGO)**에서 발표되는 통계표 및 도표
-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는 조사 결과 및 도표
- **다양한 분야의 논문**에서 발표되는 자료 및 도표
- 출제자가 문제를 위하여 구성된 **가상적 자료**

위 자료들 외에 다른 분야의 자료도 사용된다. 다양한 영역의 자료를 포함하는 것은 특정 분야의 자료를 익히는 방식으로 수험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3) 주요 평가항목

평가항목	측정내용
이해	이해는 의사전달의 내용이나 자료, 기호의 의미를 다른 소재와 관련짓지 않고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표를 보고 이것을 언어적인 형태로 표현하거나 도표 속의 내용을 말로 옮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주어진 자료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능력들이 여기에 속한다.
적용	주어진 개념이나 방법, 절차, 원리, 법칙 그리고 일반화된 방법 등을 특수한 장면이나 구체적 장면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법칙과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표나 그래프를 작성하는 문제 그리고 자료수집의 방법과 절차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분석	주어진 자료를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그 구성요소 간의 관계와 그것이 조직되어 있는 원리를 발견하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자료에 나타나 있는 외적인 현상 밑에 잠재되어 있는 아이디어 혹은 조직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자료에서 가설과 증거 사이의 관계, 부분과 부분 사이의 관계,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를 찾아내는 능력, 관계있는 자료와 관계없는 자료를 식별하는 능력 등이 분석력에 해당된다.
종합평가	여러 개의 요소나 부분을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전체를 구성하는 능력 및 주어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절차를 판단하고, 자료를 통합하여 주장하는 바를 검증하는 능력이 여기에 포함된다. 주어진 기준에 비추어 자료에서 얻어진 주장이나 결론 자체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장이나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 역시 평가하게 된다.

영역의 특징

- 기초통계능력
- 수 처리 능력
- 수학적 추리력

## 학습 방법

1. 통계 개념 숙지, 통계자료 관심
2. 자료의 비판적 이해·분석·평가
3. 자료를 직접 계산하고 조작
4. 부분 간의 관계 파악 및 규칙 도출
5. 자료 요약 및 이용법 훈련
6. 자료의 의미 기술 및 경향 파악
7. 상황의 예측 및 예측 타당성 평가

## 4) 학습 방법

자료해석 영역은 종래의 과목별 평가와 달리 특정 과목이나 해당 학문분야가 없다. 따라서 기존의 시험처럼 효과적 수험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기 힘들다. 그러나 아래의 항목별 기본 학습방법을 참작하여 준비한다면 시험을 치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수치, 표, 그래프, 통계치에 대한 이해와 분석능력**이 자료해석 영역의 문제해결에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익숙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계학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는 필요하지 않지만 **통계적 개념**을 갖추고, **수치, 도표, 통계자료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익숙해지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평소에 정부에서 발표되는 자료나 언론매체에서 보도되는 자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러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평가**하는 습관을 기르고 **정보를 추출**하는 능력 및 언론매체에서 내린 **결론이나 해석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제대로 작성된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다양한 수치자료 및 표와 그래프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도 좋다.

자료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비율이나 백분율을 산출하는 등 **자료를 직접 계산하고 조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값을 얻어낼 수 있는 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많은 계산을 하기보다는 **자료 내에서 각 부분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규칙을 스스로 도출**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복잡한 표나 그래프에서 원래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 또는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다. **주어진 자료를 요약**하여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료를 어떻게 이용할지를 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기술**하거나 또는 **다른 형태로 기술**할 수 있는 훈련, 자료가 가진 **전체적인 경향**을 읽어내는 훈련, 그리고 주어진 자료와 조건을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해 보고 이 **예측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자료해석 영역의 경우 대부분 각 평가항목 간 그리고 문제유형 간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각 **평가항목과 문제유형이 중첩·혼합**되어 출제될 것이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이 문제의 평가항목과 유형을 구분하여 각각 따로 대비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대학교양 수준의 폭넓은 독서와 관심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르고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분야의 상식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5) 참고 사항

대학 교양수준을 넘는 전문용어 및 개념이 문제에서 사용될 경우 각주 등을 통해 적절하게 설명할 것이다. 또한, PSAT 문제풀이 시 **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다.**

3. 상황판단 영역

1) 영역의 특징

상황판단 영역은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이해·적용하여 문제점을 발견**하는 능력 및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능성(대안)을 제시**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영역이다. 상황판단 영역은 **상황의 이해능력, 추론 및 분석능력, 문제해결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등을 검정한다.

영역의 특징

- 상황의 이해능력
- 추론 및 분석능력
- 문제해결능력
-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2) 문제의 소재

상황판단 영역에서 출제되는 문항(지문)의 소재는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인문 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자들이 접하게 될 **실제적인 상황, 구체적인 사회적 이슈, 공공정책** 등을 문항(지문)으로 사용한다.

문항(지문)의 소재를 다양화한 것은 학습 부담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접근할 수 있는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등을 함양하여 새롭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대학교양 수준의 지문을 사용하되, 교양 수준을 넘는 전문적인 개념이 사용된 경우에는 각주 등을 사용하여 그 개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다.

3) 주요 평가항목

평가항목	측정내용
이해력	제시된 상황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및 주어진 개념/원리 등을 새로운 상황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추론력	상황을 대안으로 설정하기 위한 주요 요인을 추리하여 대안을 설정하고, 그 대안의 실행전략을 유추할 수 있는 능력
분석력	여러 형태의 대안을 비교분석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
평가력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비교 평가하여 합리적 대안을 선택하는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 추론력, 분석력, 평가력은 각각 이전 단계를 전제로 하는 점증적 과정이므로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평가항목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4) 학습 방법

상황판단 영역은 기본적으로 특정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정분야의 지식을 습득·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보와 지식을 자신의 **논리적·비판적 사고력으로 판단·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 방법

1. 문제 발생 원인 및 본질에 관심
2. 요인 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추론
3. 대안 분석 기법에 대한 개념 이해
4. 대안의 장단점 비교·평가
5. 주변 현상에 대한 분석·평가

**‘이해력’** 항목은 주어진 정보 속에 숨어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와 그 문제의 본질을 찾는 것**이다. 평소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관심을 갖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공직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이기도 하다.

**‘추론력’** 항목은 우리가 해결하기로 정한 **문제의 대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이 항목에서는 복합적인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이 무엇이며, **어떠한 요인이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독서** 등을 통해 정보 속에 숨어있는 요인들을 끌어내고, 이들 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추론**을 통해 이를 모델화하는 훈련을 반복해 보는 것이 좋다.

**‘분석력’** 항목은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 **대안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여 **최적(최선)의 대안 선택**을 돕는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다양한 기법의 세부 내용은 모르더라도 **기법에 대한 개념과 논리는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기법들이 주는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통찰력과 연결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훈련을 반복해 보는 것이 좋다.

‘평가력’ 항목은 최종적으로 **대안들을 비교·평가하여 최적(최선)의 대안을 도출**해내고 **대안의 시행결과를 평가·환류**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각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고, **여러 기준을 통해 대안을 비교·평가**하는 훈련을 할 것을 권한다. 이러한 훈련은 역시 타 항목과 마찬가지로 평소 **주변의 현상에 대해 분석적·평가적인 시각에서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4. 결론

1) PSAT의 취지 및 영역별 특성

**PSAT는 적성시험**이지 자격증시험이 아니다.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시험도 아니고,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PSAT를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의 취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시험을 준비할 확률이 크다.

PSAT는 적성시험이기에 **각 영역별로 어떤 적성과 능력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한다. **언어논리** 영역에서는 ‘문장의 구성 및 이해능력,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 추론능력’ 등 주로 **의사소통능력 및 사고력**을 측정한다. 이러한 능력은 짧은 시간 안에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며, **평소에 많은 독서와 사고**를 통해 꾸준히 계발시켜야 하는 능력이다.

**자료해석** 영역에서는 ‘기초통계능력, 수 처리 능력, 수학적 추리력’ 등 주로 **수리적인 능력**을 측정한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수리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평균적으로 볼 때 **중학교 수준의 수학 실력**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수험생에 따라 배경지식 여부가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인별 맞춤 학습**이 필요하다.

**상황판단** 영역에서는 ‘상황의 이해능력, 추론 및 분석능력, 문제해결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등을 측정한다. 이러한 능력은 세 가지 영역에서 요구하는 능력 중 **가장 포괄적인 능력**으로서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능력이기도 하다. 특히 **연도별로 출제 경향 및 난이도가 상이**하다보니 수험생들 입장에서 가장 대비하기 힘든 영역이다.

2) PSAT 수험 전략

PSAT를 처음 접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세 영역이 모두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교과서가 지정된 것도 아니고, 수험 범위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정형화된 공부 방법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을 준비할지, 얼마나 준비할지, 어떻게 준비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은 수험생 입장에서 악몽과도 같다.

교과서도 수험 범위도 공부 방법도 전혀 정해진 것이 없는 PSAT에 유일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그것은 다른 아닌 지금까지 누적된 **PSAT 기출문제**이다.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누적된 PSAT 기출문제는 **5급공채(견습·국립외교원·지역인재 포함)가 총 20개년도, 입법고시가 15개년도, 민간경력채용이 10개년도**이다.

수험생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인 **기출문제를 교과서로 삼아 PSAT를 대비**해야 한다. 물론 이전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다시 출제될 리는 없다. 매년 실제 시험장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며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출문제를 통해 **자신이 취약한 부분과 문제 접근법 등은 분석**할 수 있다.

최대한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출제자들의 출제 의도를 간파**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을지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그와 함께 나의 **취약 영역은 무엇이며 취약 영역의 점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공직적격성탐구 2’ 수업에 참여하는 수강생 모두가 PSAT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앞으로의 수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영역별 특성

- 언어논리: 의사소통능력 및 사고력 측정
- 자료해석: 수리적인 능력 측정
- 상황판단: 가장 포괄적인 능력 측정

수험 전략

- 기출문제를 교과서로 삼아 PSAT 대비
- 취약 부분과 문제 접근법 분석
- 출제자들의 출제 의도 간파
- 문제 푸는 시간 단축하는 방법 연구

## 제 2 부 PSAT 문제해결 과정 및 공부법

### I. PSAT 문제 구조

PSAT 문제의 세부적인 형태는 영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체적인 구조는 영역을 불문하고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구조는 크게 발문, 자료, 지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보기>가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선지형 문제와 보기형 문제로 구분된다.

발문은 문제에서 묻는 내용을 질문 형태로 제시한 것을 말한다. 자료는 제시문이나 표, 그림, 상황, 조건, 정보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된다. 지문은 선지나 보기 또는 둘 모두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후보에 해당한다. 아래에서는 상황판단 영역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PSAT 문제 구조를 알아보자.

#### 1. 선지형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2019행가-01]

발문(질문)

제00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00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을 수록할 수 있고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은 24시간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자료(제시문)

- ① 문서에 '2018년 7월 18일 오후 11시 30분'을 표기해야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18. 7. 18. 23:30'으로 표기한다.
- ② 2018년 9월 7일 공고된 문서에 효력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문서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 ③ 전자문서의 경우 해당 수신자가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에 도달한 문서를 확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문서 작성 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⑤ 연계된 바코드는 문서에 함께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 파일로 처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지문(선지)

2. 보기형 문제

발문(질문)

-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9행가-23]

자료(제시문, 표)

- 정부□□청사 신축 시 <화장실 위생기구 설치기준>에 따라 위생기구(대변기 또는 소변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 남자 화장실에는 위생기구 수가 짝수인 경우 대변기와 소변기를 절반씩 나누어 설치하고, 홀수인 경우 대변기를 한 개 더 많이 설치한다. 여자 화장실에는 모두 대변기를 설치한다.

<화장실 위생기구 설치기준>

기준	각 성별 사람 수(명)	위생기구 수(개)
A	1 ~ 9	1
	10 ~ 35	2
	36 ~ 55	3
	56 ~ 80	4
	81 ~ 110	5
	111 ~ 150	6
B	1 ~ 15	1
	16 ~ 40	2
	41 ~ 75	3
	76 ~ 150	4
C	1 ~ 50	2
	51 ~ 100	3
	101 ~ 150	4

<보 기>

지문(보기)

- ㉠. 남자 30명과 여자 30명이 근무할 경우, A기준과 B기준에 따라 설치할 위생기구 수는 같다.
- ㉡. 남자 50명과 여자 40명이 근무할 경우, B기준에 따라 설치할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같다.
- ㉢. 남자 80명과 여자 80명이 근무할 경우, A기준에 따라 설치할 소변기는 총 4개이다.
- ㉣. 남자 150명과 여자 100명이 근무할 경우, C기준에 따라 설치할 대변기는 총 5개이다.

지문(선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 II. PSAT 문제해결 과정

PSAT나 NCS, 대기업 인적성 시험 등과 같은 적격성평가에서의 문제해결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거친다.

문제 인지 → 조건 이해 → 이론 탐색 → 조건 적용 → 정답 도출

이 중 '문제 인지'와 '조건 이해'를 묶어서 '문제 이해' 단계로 보고, '조건 적용'과 '정답 도출'을 묶어서 '문제 해결' 단계로 볼 경우, 문제해결 과정은 3단계로 나눌 수도 있다. 각 단계별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1. 문제 인지

#### 1) 문제 인지의 개념

'문제 인지'란, 말 그대로 출제된 **문제 자체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문제에 관하여 세부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으며, 전체적인 문제의 첫인상은 어떤지** 정도만 파악해도 충분하다. 여기에 **출제자의 출제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문제를 풀려면 먼저 **무엇을 묻는지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무엇을 묻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의 답을 찾을 수는 없다. 이처럼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파악하는 단계가 바로 '문제 인지' 단계이다.

PSAT에 이제 막 입문하여 문제 유형에 아직 익숙한 상태가 아닐 경우, 이 '문제 인지' 단계를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된다. PSAT 초심자들이 하는 실수는 대부분 '문제 인지'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문제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문제 인지' 단계에서 신경 써야 할 요소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발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둘째, **제시된 자료를 확인한다.** 셋째, **보기 또는 선지를 확인한다.** 세 가지 요소 중에서도 첫 번째 즉, 발문 읽기가 가장 중요하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는 '조건 이해' 및 '조건 적용' 단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아도 무방하다.

#### 2) 발문 읽기

문제 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문(질문 문장)을 꼼꼼하게 읽는 것**이다. 발문만 꼼꼼하게 읽어도 **출제 의도**뿐만 아니라 **문제 유형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다. 단, 문제 유형과 발문 형식이 항상 일대일로 매칭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문제에 대한 감을 잡는 정도**로만 인지하는 것이 좋다.

발문에 담기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둘째, 자료를 통해 도출하기를 바라는 **실제 질문 내용**이다. 이 외에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정보나 단서**를 발문에 제공하기도 한다. 이때에는 발문을 제대로 읽지 않는 한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Example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다음 <국내 대학(원) 재학생 학자금 대출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甲 ~ 丙은 국내 대학(원)의 재학생이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구매해야 할 재료와 그 양으로 옳은 것은?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백화점이 한 해 캐를 음원이용료로 지불해야 하는 최대 금액은?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방에 출입한 사람의 순서는?

#### 개념 이해

문제 인지란, 출제된 문제 자체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필수 확인 요소

1. 발문 내용 꼼꼼하게 확인 ★★★
2. 제시된 자료 확인 ★★
3. 보기 또는 선지 확인 ★

#### 발문의 정보

1.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2. 자료를 통해 묻는 실제 질문 내용
3.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정보 및 단서

발문에서 **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제시문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묻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에서는 발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적은 편이므로 가볍게 넘어가도** 된다.

자료를 통해 **어떤 내용을 도출할 것인지**는 발문에 반드시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보기>가 없는 문제에서는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과 같은 표현으로 발문이 끝난다. 보기가 있는 문제에서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과 같은 표현으로 발문이 끝난다.

자료 종류

- 글: 제시문(법조문, 보고서 등 포함), 조건, 정보, 상황, 각주 등
- 기타: 그림, 표, 수식 등

3) 자료 확인

발문을 읽은 뒤에는 **문제에 제시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언어논리 문제에서는 **제시문(법조문, 보고서 등)**이 주로 나오며, 간혹 제시문 안에 **그림이나 표, 수식**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자료해석 문제에서는 **표나 차트 또는 보고서** 등이 주로 출제되며, 상황판단 문제에서는 제시문과 그림, 표, 수식, 각주 등이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문제 인지' 단계에서의 자료 확인은 **자료 제시 여부만을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가볍게 훑어보면서 **'대충 이런 자료가 나왔구나'** 정도만 확인한다. 자료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조건 이해' 단계 이후에 진행하면 된다.

필수 확인 요소

1. 키워드 표시 ★★★
2. 자료의 제목 및 항목 확인 ★★
3. 주의사항 및 예외 조건 확인 ★★★

이때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첫째, 제시문의 경우 간단히 스캔하면서 **키워드가 보이면 이를 표시**해준다. 둘째, 표나 그림의 경우 **제목이나 단위,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셋째, 각주나 정보 상자 등의 경우 **주의해야 할 조건이나 예외 규정 또는 단서**가 없는지 확인한다.

보기 vs 선지

- 보기: ㄱ, ㄴ, ㄷ 등으로 표시
- 선지: ①, ②, ③ 등으로 표시

4) 보기 및 선지 확인

**보기**란, 일반적으로 **ㄱ, ㄴ, ㄷ과 같은 기호**가 매겨져 있으며 옳거나 또는 옳지 않은 설명으로 구성된 <보기> 박스의 진술을 의미한다. **선지**란, ①~⑤로 매겨진 옳거나 또는 옳지 않은 설명을 의미한다. 보기가 활용된 문제를 보기형 문제, 선지가 활용된 문제를 선지형 문제라 한다.

**보기형 문제**에서는 **1개 이상의 보기 조합이 선지로 제공**되며(예: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제 유형에 따라 하나의 보기만이 정답일 수도 있고 3개 또는 4개가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기가 어떻게 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한두 개의 보기만 확인해도 정답이 도출되기도 한다.

**선지형 문제**에서는 옳은 것을 묻는 문제에서는 **옳은 설명 하나만**,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설명 하나만 정답**이 된다. 간혹 출제 오류로 인해 복수 정답 또는 전원 정답이 되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 정답은 하나뿐이라고 보면 된다.

필수 확인 요소

1. 쉬운 지문부터 확인 ★★★
2.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확인 ★★
3. 지문 내용 중 핵심 키워드 표시 ★

'문제 인지' 단계에서 보기 및 선지(이하 '지문'이라 함)를 확인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첫째, 낯선 문제일수록 어려운 지문보다는 **쉬운 지문을 먼저 확인**한다. 그 이유는 안 그래도 문제가 낯선 상태에서 어려운 지문을 먼저 확인하려다가는 자칫 문제 푸는 시간이 지나치게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낯익다면 어려운 지문부터 확인**해도 무방하다.

둘째, 지문의 난이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그냥 ㄱ부터 ㄷ까지 또는 ①에서 ⑤까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지문**을 확인한다. 모든 문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문의 난이도는 ㄱ이나 ①이 가장 쉬운 편이고, ㄷ이나 ㄷ 또는 ④나 ⑤가 가장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지문의 난이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릴 것 같다면 순서대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

셋째, 지문 내용 중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해당 지문에만 등장하는 단어나 수치, 비교 표현(~보다 크다/작다, ~과 같다, ~이상/이하/초과/미만)** 등은 중요한 키워드이므로 잘 표시해두는 것이 좋다. 그런 뒤에 제시문이나 자료 등에서 관련 내용이 보인다면 그 부분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된다.

2. 조건 이해

1) 조건 이해의 개념

‘조건 이해’란, ‘문제 인지’ 단계에서 확인한 각종 자료들 즉,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깊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료에 제시된 **조건 및 상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조건이나 상황을 구성하는 **각종 요소들이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상황판단 문제에서 조건은 주로 **제시문, 표, 그림, 수식, 단서** 등으로 제시된다. 또한 보기 및 선지에서 **특정 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형태로 조건이 제시되는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유념해야 할 것은 **각각의 조건이 적용되는 상황**은 무엇이며, 각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2) 제시문 이해 포인트

제시문이 나온 경우, **제시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시문의 주제**는 무엇이며 **단락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주제문과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때 핵심 키워드는 둘 이상일 수도 있다. 핵심 키워드가 둘 이상일 때는 각각의 관계까지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제시문은 **비교, 대조, 구분, 분류, 정의, 통시적 서술, 묘사, 설명, 설득**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구조로 이루어진 글이다. 이 중 PSAT에 주로 소개되는 글은 논리적 구조를 지닌 글로서 **비교, 대조, 구분, 분류, 정의** 등으로 이루어진 글이 많다. 따라서 핵심 키워드들 간의 관계만 정리할 수 있으면 내용 이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Example

조선시대 임금에게 올리는 진지상을 수라상이라 하였다. 수라는 올리는 시간 순서에 따라 각각 조(朝)수라, 주(晝)수라, 석(夕)수라로 구분되고, 조수라 전에 밥 대신 죽을 주식으로 올리는 죽(粥)수라도 있었다. 수라상은 두 개의 상, 즉 원(元)반과 협(狹)반에 차려졌다.

수라 전후에 반과(盤果)상이나 미음(米飮)상이 차려지기도 했는데, 반과상은 올리는 시간 순서에 따라 조다(早茶), 주다(晝茶), 만다(晩茶), 야다(夜茶) 등을 앞에 붙여서 달리 불렀다. 반과상은 국수를 주식으로 하고, 찬과 후식류를 자기(磁器)에 담아 한 상에 차렸다. 미음상은 미음을 주식으로 하고, 육류 음식인 고음(膏飮)과 후식류를 한 상에 차렸다. [2019민나-04]

3) 표 이해 포인트

표가 나온 경우에도 **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해야 한다. 특히 **제목**이 주어진 경우 제목을 통해 표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며, **단위**가 제시된 경우에는 수치들의 의미 및 관계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 제목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표의 위나 아래에 제시된 간략한 **소개**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표의 **항목**들도 눈여겨 봐두는 것이 좋다. 각 항목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며, 다른 항목과는 어떤 관계인지도 확인한다. 단순 나열식으로 항목을 제시하였다면 특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은 없지만, 만약 항목이 **다단계 형식**으로 구성되었다면 **항목 간 포함 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개념 이해

조건 이해란,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깊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수 확인 요소

- 1. 핵심 내용 파악 ★★★
- 2. 주제 및 단락 간 관계 파악 ★★
- 3. 핵심 키워드 간 관계 파악 ★★★

필수 확인 요소

- 1. 표의 제목 ★★★
- 2. 표의 단위 및 항목 ★★
- 3. 표에 대한 소개 ★★★

**Example**

<국내 대학(원) 재학생 학자금 대출 조건> [2019행가-03]

구분		X학자금 대출	Y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신청 연령	· 35세 이하	· 55세 이하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C학점 이상 (단,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면제)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C학점 이상 (단, 대학원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 소득 1 ~ 8분위	· 소득 9, 10분위
	신용 요건	· 제한 없음	·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대출 불가
대출 한도	등록금	· 학기당 소요액 전액	· 학기당 소요액 전액
	생활비	· 학기당 150만 원	· 학기당 100만 원
상환 사항	상환 방식 (졸업 후)	·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이전: 유예	· 졸업 직후 매월 상환
		·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이후: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원천 징수 ※ 기준소득: 연 □천만 원	·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통역료(통역사 1인당) [2019행가-09]

구분	기본요금 (3시간까지)	추가요금 (3시간 초과시)
영어, 아랍어, 독일어	500,000원	100,000원/시간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600,000원	150,000원/시간

**필수 확인 요소**

1. 필요한 내용 취사 습득 ★★★
2. 그림 설명 꼼꼼히 확인 ★★★
3. 문제 풀이를 위한 힌트 파악 ★★★

4) 그림 이해 포인트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글만으로는 정확히 묘사하기 어렵거나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림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림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취사 습득**해야 한다.

그림을 제시하는 문제에서는 대부분 **해당 그림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설명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은 문제를 풀기 위해 꼭 필요한 힌트를 담고 있으므로 이러한 힌트들도 꼭 파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추가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그림에 메모**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다.

**Example**

○ 아래와 같이 생긴 25개의 사물함 각각에는 200원이 들어 있거나 300원이 들어 있거나 돈이 아예 들어있지 않다. [2017행가-18]

1	2	3	4	5	900
6	7	8	9	10	700
11	12	13	14	15	500
16	17	18	19	20	300
21	22	23	24	25	500
					500 400 900 600 500

5) 수식 이해 포인트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수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수식이 제시되었을 때는 **수식 안에 사용된 변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수식이 제시된 경우에는 **공통으로 사용된 변수**를 이용하여 다른 변수 간의 관계를 찾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수식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분수) 등 **사칙연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다만, 수치 구조가 복잡하거나 단위가 통일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계산할 때 약간 번거로울 수 있다. 이때는 **수식 구조를 변형**하거나 **수치 구조를 단순화하여 비교**하는 것이 좋다.

필수 확인 요소

1. 수식에 사용된 변수 확인 ★★★
2. 변수 간 관계 확인 ★★
3. 수식 또는 수치 구조 변형 ★★★

Example

○ 광고효과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2019행가-29]

$$\text{광고효과} = \frac{\text{총 광고 횟수} \times \text{회당 광고노출자 수}}{\text{광고비용}}$$

<표>

광고수단	광고 횟수	회당 광고노출자 수	월 광고비용(천 원)
TV	월 3회	100만 명	30,000
버스	일 1회	10만 명	20,000
KTX	일 70회	1만 명	35,000
지하철	일 60회	2천 명	25,000
포털사이트	일 50회	5천 명	30,000

6) 단서 이해 포인트

**단서**란, **원칙에서 벗어난 경우 또는 예외 상황**에 대한 서술을 의미한다. 단서는 **발문 끝에 괄호 형태**로 제시되기도 하고, 제시문이나 조건, 상황 등에서 추가적인 서술로 제공되기도 한다. 이때 **'단, 다만'** 등의 접속사가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접속사가 쓰였다면 원칙과의 관계, 예외 상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단서가 쓰인 문제에서는 이 **단서를 활용하여 함정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본 원칙은 만족하되 단서에 해당하는 예외에 해당하면, 결국 기본 원칙마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는 단서에 다시 단서를 둬으로써 **'예외의 예외'**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단서가 포함된 경우에는 규정 구조를 잘 파악해놓을 필요가 있다.

필수 확인 요소

1. '단, 다만' 등의 접속사 ★★★
2. 예외 해당 여부 확인 ★★★
3. '예외의 예외' 여부 확인 ★★

Example

다음 <국내 대학(원) 재학생 학자금 대출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甲 ~ 丙은 국내 대학(원)의 재학생이다) [2019 행가-03]

②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과 지원금 신청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2019행가-03]

개념 이해

이론 탐색이란 상황을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한 이론이나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3. 이론 탐색

1) 이론 탐색의 개념

‘이론 탐색’이란 ‘문제 인지’ 및 ‘조건 이해’를 통해 파악한 **상황을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한 이론이나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PSAT 취지상 문제를 풀기 위해 어렵거나 상세한 이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이론이나 문제해결 방법을 사전에 익혀두는 것이 좋다.

상황판단 문제에서 적용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제시문 분석 방법, 법조문의 구성 원칙, 사례 적용, 사칙연산, 대안 비교, 대안 선택, 논리 및 명제, 날짜 찾기, 규칙 찾기, 도식화, 퍼즐 해결** 등이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상황이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모든 이론 및 문제해결 방법을 미리 준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 유형이나 출제 경향 역시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수험 전략도 대단히 유동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출제 경향이 어느 정도 정착된 언어논리나 자료해석 영역과는 달리 상황판단 영역에서 이론의 중요성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러 기출문제를 통해 **정형화된 유형의 문제들**은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유형별 기본 이론 및 문제해결 방법은 해당 파트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주로 출제되는 대표적인 이론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자.

2) 제시문 분석 방법

제시문은 길이에 따라 적게는 2~3개, 많으면 4~5개의 문단으로 나뉜다. 각 문단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심 생각(주제)**만을 담고 있다. 주제는 하나의 문장(**주제문**)으로서 명시적으로 드러난 경우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숨겨진 경우도 있다. 주제문이 드러나 있다면 일반적으로 **문단의 처음(두괄식)이나 끝(미괄식)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제시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문단의 주제를 이해**해야 하고, 각 문단의 주제를 이해하려면 각 문단의 **주제문부터 먼저 찾아야** 한다. 만약 주제문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면, 해당 문단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찾는 것이 좋다. 이때 키워드는 **제시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지문에 등장한 단어** 등에서 찾으면 된다.

제시문을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는 결국 **독해력**과 연관된 문제다. 즉, 긴 글을 읽고 그 글의 내용을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에 **독서를 일상화**하되, 자신이 읽은 내용에 대하여 짧게나마 **요약하는 훈련**을 반복해주는 것이 좋다.

필수 확인 요소

- 1. 주제문 찾기 ★★★
- 2. 핵심 키워드 찾기 ★★★
- 3. 요약 훈련하기 ★★★

Example

보다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이상적인 점포 입지를 결정하기 위한 상권 분석이론에는 ‘X가설’과 ‘Y가설’이 있다. X가설에 의하면, 소비자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점포들 중 한 점포를 선택할 때 가장 가까운 점포를 선택한다. 그러나 이동거리가 점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소비자가 항상 가장 가까운 점포를 찾는다는 X가설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가령, 소비자들은 먼 거리에 위치한 점포가 보다 나은 구매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동에 따른 추가 노력을 보상한다면 기꺼이 먼 곳까지 찾아간다.

한편 Y가설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어떤 지역에 대한 각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각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각 도시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본다. 즉,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더 많은 구매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고 본 것이다.

[ 2019행가-07 ]

3) 법조문의 구성 원칙

상황판단 문제에 인용되는 법령은 주로 '조-항-호-목'의 형태로 구성된다. 이는 법령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성 단위로서 이 구조만 익히면 문제 푸는 데 큰 지장은 없다. 각각의 표기 형식을 보면, '조는 '제00조'로, '항은 '① ② ③ ...'으로, 호는 '1. 2. 3. ...'으로, 목은 '가. 나. 다. ...'로 표기한다.

법령의 문장을 법조문이라 하는데, 법조문은 크게 본문과 단서로 나뉜다. 본문에서는 해당 조항에서 다루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단서에서는 본문 내용과 반대되는 사항 또는 예외 규정 등을 제시한다. 본문과 단서는 하나의 조항 안에서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서술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조항에 나누어 서술되기도 한다.

본문과 단서 문장은 각각 주어부(주체 포함)와 서술부(객체 및 효과 포함)로 나뉜다. 대등한 내용이 나란히 제시된 경우, 전단과 후단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 문장 안에 요건(특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과 효과(요건을 만족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자격 또는 효력)를 함께 서술하기도 하고 요건과 효과를 분리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정리하면, 법조문은 기본적으로 '주체-객체-요건-효과-예외'로 구성된다. 경우에 따라 한두 요소는 생략되기도 하지만 '주체와 효과'는 거의 생략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조문을 이해하는 것이 아직 낯설다면 우선 '주체'와 '효과'부터 찾아보고 부수적으로 객체와 요건은 무엇인지, 예외는 제시되었는지 등을 순차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

법조문의 구성

1. 조-항-호-목
  - 조: "제00조", 항: "① ② ③ ..."
  - 호: "1. 2. 3. ...", 목: "가. 나. 다. ..."
2. 주체-(객체)-(요건)-효과-(예외)

필수 확인 요소

1. 본문 vs 단서
2. 주어부 vs 서술부
3. 전단 vs 후단
4. 요건 vs 효과

Example

제00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0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②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① 민원인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부동산거래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 2019행가-22 ]

개념 이해

조건 적용이란 문제에 제시된 상황 및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사례 등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수 확인 요소

- 1. 문제 인지, 조건 이해, 이론 탐색 필수
- 2. 특정 조건만 우선 적용하는 것도 가능
- 3. 본인만의 문제 풀이 방식 습득하기

필수 확인 요소

- 1. 제시문 내용 충분히 이해 ★★★
- 2. 제시된 예외의 관련성 이해 ★★
- 3. 사례의 주체 확인 ★★★
- 4. 원칙 또는 예외 여부 확인 ★★★

4. 조건 적용

1) 조건 적용의 개념

‘조건 적용’이란 문제에 제시된 **상황 및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사례 등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단계인 ‘문제 인지’부터 ‘조건 이해’, ‘이론 탐색’까지가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론을 찾는 과정이었다면, ‘조건 적용’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조건 적용’ 단계는 그 자체만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우며, **전단계와 함께 연계**하여 진행해야 한다. 즉, ‘문제 인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조건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론 탐색’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조건 적용’부터 시도하다가 출제자가 만들어놓은 함정에 빠지기 쉽다.

단, 문제에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을 모두 확인한 다음에 ‘조건 적용’ 단계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문제 인지’ 단계에서 **특정 조건을 발견**한 경우, ‘조건 이해’ 단계로 넘어가 해당 조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론 탐색’까지 손쉽게 마쳤다면 **해당 조건에 한하여 바로 ‘조건 적용’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를 푸는 방식은 한 가지로 고정된 것이 아니며 각각의 문제에 따라 접근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해보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특히 상황판단 문제의 경우, 배경지식 수준에 따라 제시문을 대충 읽거나 읽지 않고 바로 지문을 확인하여 답을 골라내는 경우도 가능하다.

상황이나 조건이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해당 조건을 적용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각 유형별 조건 적용 방법은 해당 파트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대표적인 방법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자.

2) 사례 적용 방법

사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된다. 제시문(법조문 포함)에 서술된 내용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묻는 것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사례를 잘 적용하려면, 우선 **제시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예가 제시되었다면 그 **예와 지문 등에 등장한 사례가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법조문의 경우에는 **해당 사례의 주체**부터 확인해야 한다. 잘못된 주체를 제시하고서 엉뚱한 요건이나 효과를 적용하는 함정이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사례가 **원칙과 예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mple

-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A동 주민 甲(30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동장을 방문하여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재외국민 乙(26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바 있는 丙(17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④ 토지매매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B동 주민 丁(25세)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을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2019행가-22 ]

3) 수치 계산 방법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거리, 사람 수 등의 수치를 구하라는 문제의 경우, 약간의 수치 계산이 필요하다. 이때 계산 자체보다는 **계산에 어떤 수치를 반영해야 하는지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무턱대고 계산부터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치를 정확히 찾는 것부터 해야 한다.

수치 계산형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수치를 제시하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기 쉽다. 함정을 피하려면, **해당 상황이나 사례의 의미**뿐만 아니라 문제에 제시된 조건 중 **어느 조건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단서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치를 제대로 찾은 다음에는 제시된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계산**해야 한다. 계산 방법은 **수식**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서술형 문장**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계산은 사칙연산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술형 문장 형태로 계산 방법이 제시되었더라도 차분하게 방법을 찾아가면 된다.

PSAT 문제는 객관식이란 출제되므로 **지문에 제시된 수치 구조 특성을 이용하여** 보다 빠르게 답을 찾아내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덧셈이 포함된 계산에서는 일의 자리나 십의 자리 등 **특정 자리 숫자만 계산**하여 정답을 골라내거나 **차잇값 등을 활용**하여 계산 과정을 줄이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필수 확인 요소

1.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치 찾기 ★★★
2. 적용해야 하는 조건 파악하기 ★★★
3. 단서 및 예외 적용 여부 확인 ★★
4. 계산 방법 적용하여 계산하기 ★★★

Example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옳게 짚은 것은? [2019민나-0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특허출원료

가. 특허출원을 국어로 작성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6,000원.  
다만 전자문서를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건 56,000원으로 한다.

나. 특허출원을 국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66,000원에 서면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 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작성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73,000원

라. 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3,000원에 서면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을 가산한 금액

2. 특허심사청구료: 매건 143,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4,000원을 가산한 금액

<상 황>

甲은 청구범위가 3개 항으로 구성된 총 27면의 서면을 작성하여 1건의 특허출원을 하면서, 이에 대한 특허심사도 함께 청구한다.

	국어로 작성한 경우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
①	66,000원	275,000원
②	73,000원	343,000원
③	348,000원	343,000원
④	348,000원	375,000원
⑤	349,000원	375,000원

**개념 이해**

정답 도출이란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필수 확인 요소**

1. '옳은/옳지 않은' 각각 표시하기
2. '옳지 않은'만 별도로 표시하기

**필수 확인 요소**

1. 확실한 선지를 골라 정답으로 체크
2. 어려운 선지 대신 다른 선지 확인
3. 보기 조합에 따라 확인 순서 결정

**5. 정답 도출**

1) 정답 도출의 개념

'정답 도출'이란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선지형 문제의 경우는 선지 중 '옳은' 설명 또는 '옳지 않은' 설명을 담고 있는 선지 하나만을 찾으면 된다. 보기형 문제의 경우는 보기 중 '옳은' 설명만을 담은 보기 조합 또는 '옳지 않은' 설명만을 담은 보기 조합을 찾으면 된다.

'조건 적용' 단계까지 문제를 잘 풀어왔다면 정답을 도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옳은' 설명을 고르라는 문제에서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거나 또는 반대로 고르는 경우가** 의외로 자주 일어나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문제를 다 맞게 풀어놓고서 결국 틀렸다면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실수 줄이기

정답을 반대로 고르는 실수를 자주 한다면, '문제 인지' 단계에서부터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옳은' 설명을** 찾으라는 문제에는 지문 옆에 **'O'나 'T'로, '옳지 않은' 설명을** 찾으라는 문제에는 지문 옆에 **'X'나 'F'로 표시**하면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위 방법 말고도 '옳은' 설명을 찾으라는 문제는 특별히 표시하지 않고 '옳지 않은' 설명을 찾으라는 문제에만 본인만의 특별한 표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든지 **본인에게 더 편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그리고 문제 풀 때마다 그 방식을 반복하여 적용함으로써 완벽하게 숙달하는 것이 좋다.

3) 문제 유형별 정답 찾기

**선지형 문제**에서는 **단 하나의 선지만이 정답**이므로 확실하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선지가 보인다면 그 선지를 정답으로 체크하면 된다. 이 경우 남은 선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므로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 또는 특정 선지가 이해되지 않거나 어렵다면, 역으로 다른 선지부터 먼저 파악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보기형 문제**에서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보기가 정답이므로 **보기 조합 먼저 확인**한 뒤, 보기들의 확인 순서를 결정할 수도 있다. 보기는 일반적으로 3~5개가 제시되는데 조합 방식에 따라 보기 한두 개만 확인해도 정답이 도출되기도 한다. 어떤 보기를 먼저 봐야 하는지에 관한 규칙은 없으므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며 익히는 수밖에 없다.

**6. 결론**

PSAT 문제는 **제한된 시간(2분~2분 30초 내외) 안에 풀어야** 한다. 이러한 압박감 때문에 문제 이해를 위해 들이는 시간이 아까워 무작정 문제부터 풀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직 PSAT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접근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급할수록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30초 정도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 충분히 들이는 것이 좋다. 30초 동안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이해한 뒤, **추가로 2분** 정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그때 문제를 풀면 된다. 만약 추가로 2분 안에 문제를 풀기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면 일단 그 문제는 건너뛰는 것이 좋다.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순발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순발력은 **다양한 경험과 사전 지식이 누적**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다. 따라서 평상시에 **다양한 유형과 소재로 구성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생각도 많이 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접할 때마다 위에서 제시한 **문제해결 과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잘 정리하는 것도 좋은 대비법이 될 것이다.

### III. PSAT 정복 단계

#### 1. PSAT 정복 단계의 개념

‘PSAT 정복 단계’란, 메타인지 개념을 토대로 **PSAT에 대한 인지 수준**을 단계별로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메타인지(Meta-cognition)’란, **‘인지에 대한 인지’**로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생각의 근거는 무엇이고, 어떤 순서대로 생각하였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요컨대 메타인지란,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PSAT를 예로 들었을 때, 특정 문제를 접한 경우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였고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였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능력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능력은 사람마다 각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을 스스로 점검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PSAT와 같은 인적성 시험의 경우, 시험 취지상 많은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제시된 조건 등을 활용하여 **주어진 상황을 얼마나 잘 해석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문제해결 과정에서도 강조하였듯이 ‘문제 인지’부터 ‘조건 이해’, ‘이론 탐색’, ‘조건 적용’, ‘정답 도출’까지 이러한 상황 해석 능력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 2. 메타인지 수준의 구분

메타인지 수준은 크게 ‘객관적 관점’ 기준과 ‘주관적 관점’ 기준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이때 **‘객관적 관점’**이란 특정 문제에 대하여 **실제로 알고 있는지 또는 모르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반면, **‘주관적 관점’**이란 특정 문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나타낸다.

이 두 가지 기준은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다. 내가 실제로 알고 있는지 여부는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아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바른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잘못 아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완벽히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정작 본인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처럼 ‘객관적 관점’과 ‘주관적 관점’은 서로 일치하기도 하지만 서로 불일치하기도 한다. 두 관점이 서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네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관적 관점	안다	모른다
객관적 관점			
모른다		② 모르는 것을 아는 상태	① 모르는 것을 모르는 상태
안다		③ 아는 것을 아는 상태	④ 아는 것을 모르는 상태

위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지식의 습득 과정에서 메타인지 수준은 **‘① 모르는 것을 모르는 상태 → ② 모르는 것을 아는 상태 → ③ 아는 것을 아는 상태 → ④ 아는 것을 모르는 상태’**의 순서로 발전한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있으나 PSAT에서 학습 수준은 위와 같은 순서대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PSAT 정복 단계’란 단계별 메타인지 수준을 PSAT 이해에 접목한 것이다. 메타인지 수준은 엄밀하게 구분되기보다는 중첩되어 나타나므로 PSAT 정복 단계 역시 엄밀한 구분 기준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으로 접근하여 각 단계가 지닌 특징을 미리 알아둔다면 보다 용이하게 PSAT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 개념 이해

‘PSAT 정복 단계’란, PSAT에 대한 인지 수준을 단계별로 제시한 것이다. ‘메타 인지(Meta-cognition)’란,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 개념 이해

- 객관적 관점 : 실제로 아는지/모르는지
- 주관적 관점 : 안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 메타인지 수준

- ① 모르는 것을 모르는 상태 (모 - 모)
- ② 모르는 것을 아는 상태 (모 - 아)
- ③ 아는 것을 아는 상태 (아 - 아)
- ④ 아는 것을 모르는 상태 (아 - 모)

**모 - 모 단계**

- 모르는 것을 모르는 단계
- 문제 내용을 거의 모르는 상태
- 문제 풀이를 위한 준비 전혀 안됨
- 틀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함
-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질문하지 못함
-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함

**모 - 아 단계**

- 모르는 것을 아는 단계
- 문제 내용을 약간 모르는 상태
- 문제 풀이를 위한 준비 약간 부족
- 틀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음
-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질문할 수 있음
- 놓친 부분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음

**아 - 아 단계**

- 아는 것을 아는 단계
- 문제 내용을 대부분 아는 상태
- 문제 풀이를 위한 준비 거의 갖추
- 틀린 문제의 원인 및 해결책 제시 가능
- 이해한 부분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음
- 유형별 문제 접근 요령 정리할 수 있음

**3. PSAT 정복 단계별 특징**

1) 모르는 것을 모르는 단계

첫 번째 단계인 '모르는 것을 모르는 단계(이하 모 - 모 단계)'는 문제의 내용을 거의 모르는데다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다. 이 단계의 수험생들은 문제 풀이를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므로 문제를 풀더라도 맞게 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

맞힌 문제는 **이해가 부족하거나 찍어서 맞힌 경우**가 많으며,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틀린 원인이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풀었던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고 싶어도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자신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조차 설명하기 **어려워하기도** 한다.

**PSAT를 처음 접한 수험생**은 시험의 취지라든지 문제 유형 등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 대부분 이 단계에 속한다. 따라서 이제 막 PSAT를 접했다면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약간의 학습만으로도 이 단계는 충분히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학습을 계속하더라도 **아주 낮은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단계에 머무**를 수는 있다.

2) 모르는 것을 아는 단계

두 번째 단계인 '모르는 것을 아는 단계(이하 모 - 아 단계)'는 이전 단계와 비교할 때 문제의 내용은 약간 더 알고 있으나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은 상태다. 다만 이전 단계와는 달리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며** 문제 풀이를 위한 **동기 부여 및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맞게 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며, 틀린 문제의 경우 **왜 틀렸는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이 가능하며, 문제 내용 중 **놓친 부분을 스스로 찾아낼** 수도 있다.

**PSAT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보았거나 관련 강의를 일정 시간 이상 수강**한 경험이 있다면 대부분 이 단계에 속한다. 즉 문제를 풀면서 또는 강의를 들으면서 점차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감을 잡아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 단계만으로는 **합격권 점수에 도달하기 어려우며**, 합격을 위해서는 좀 더 깊은 학습이 필요하다.

3) 아는 것을 아는 단계

세 번째 단계인 '아는 것을 아는 단계(이하 아 - 아 단계)'는 이전 단계와 비교할 때 매우 많은 점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첫째, **문제의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다**. 둘째, **문제 풀이를 위한 준비도 거의 갖추었다**. 셋째, **틀린 문제**의 경우 왜 틀렸는지에 대하여 **원인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이전 단계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문제 내용 중 **자신이 이해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확실하게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다.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는 없다.

PSAT 문제를 상당히 많이 풀어보았거나 문제 푸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대부분 이 단계에 속한다. 특히 본인이 약한 유형과 강한 유형을 나눌 줄 알고 **각 유형에 대한 문제 접근 요령까지도 정리**할 수 있다. 이 단계까지 도달했다면 합격권 점수에는 거의 도달한 상태에 해당한다.

4) 아는 것을 모르는 단계

네 번째 단계인 ‘아는 것을 모르는 단계(이하 아-모 단계)’는 이전 단계들과는 약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이 단계는 이전 단계와 비교할 때 수준이 대단히 높은 단계로서 거의 **달인의 경지**에 해당한다. 즉, 마치 어떤 일을 굉장히 잘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어려워하는 달인과의 같은 단계인 것이다.

이 단계의 수험생들은 **문제 내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를 위한 준비도 완벽히** 갖춘 상태다. **틀리는 문제가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소수에 그친다. 문제 푸는 방법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설명하는 것을 어렵게 느낀다**.

합격권 점수를 훌쩍 넘는 수험생의 경우 이 단계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을 무의식적으로 완벽히 숙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단계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극히 적다. 또한 이 단계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이 수준까지 공부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처럼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 네 번째 단계는 그저 이상적으로만 존재하는 단계라 생각하고 최소 세 번째 단계까지는 도달하자는 목표가 가장 바람직하다. 단, 특정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많이 풀다 보면,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네 번째 단계까지 이를 수도 있다.

아-모 단계

- 아는 것을 모르는 단계
- 문제 내용을 완벽히 아는 상태
- 문제 풀이를 위한 준비 완벽히 갖춤
- 틀리는 문제가 거의 없음
- 문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함
- 현실적으로 달성하기는 대단히 어려움

4. PSAT 정복 단계 자가 테스트

1) 체크리스트

PSAT 정복 단계는 사람마다 다르며, 푸는 문제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문제마다 체감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쉬운 문제에서는 더 높은 단계가 나올 수 있는 반면, 어려운 문제에서는 더 낮은 단계가 나올 수 있다. 즉, PSAT 정복 단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여건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PSAT 정복 단계를 잘 분석해두면 자신의 현재 PSAT 수준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PSAT 공부 방향을 세우는 데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이 PSAT 정복 단계 중 현재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개별 문제를 풀어본 뒤 다음 체크리스트에 답해보기 바란다.

질문		그렇다	모르겠다	아니다
①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가 충분한 상태인가?				
②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틀린 문제	③ 원인을 이해하고 있는가?			
	④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가?			
	⑤ 해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⑥ 해법을 설명할 수 있는가?			
맞힌 문제	⑦ 해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⑧ 해법을 설명할 수 있는가?			

- ① 문제를 풀기 위한 주변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문제를 풀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갖추었는가? 문제를 풀 때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고 문제에만 집중하여 끝까지 잘 풀어냈는가?
- ② “하루 질문”을 통해 답변한 내용을 참고할 때, 오늘 푼 문제들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묻고 있는 내용에 올바르게 답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등을 잘 이해하였는가?
- ③ 틀린 문제의 경우, 어떤 원인 때문에 문제를 틀렸는지 그 원인을 이해하고 있는가?
- ④ 틀린 문제의 경우, 어떤 원인 때문에 문제를 틀렸는지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틀린 문제에서 자신이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

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가?

- ⑤ 틀린 문제의 경우, 올바르게 풀 수 있는 해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 ⑥ 틀린 문제의 경우, 올바르게 풀 수 있는 해법을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⑦ 맞힌 문제의 경우, 올바르게 풀 수 있는 해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 ⑧ 맞힌 문제의 경우, 올바르게 풀 수 있는 해법을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는가?

**참고사항**

이 페이지는 각 단계별로 가장 전형적인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결과를 예로 든 것이다. 실제 결과와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자신의 체크리스트 결과와 가장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단계가 자신의 현재 상태라고 보면 된다.

2)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 결과 (예시)

• 모 - 모(모르는 것을 모르는) 단계

질문		그렇다	모르겠다	아니다
①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가 충분한 상태인가?				V
②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V
틀린 문제	③ 원인을 이해하고 있는가?			V
	④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가?			V
	⑤ 해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V
	⑥ 해법을 설명할 수 있는가?			V
맞힌 문제	⑦ 해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V
	⑧ 해법을 설명할 수 있는가?			V

• 모 - 아(모르는 것을 아는) 단계

질문		그렇다	모르겠다	아니다
①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가 충분한 상태인가?			V	
②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V	
틀린 문제	③ 원인을 이해하고 있는가?	V		
	④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가?	V		
	⑤ 해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V	
	⑥ 해법을 설명할 수 있는가?		V	
맞힌 문제	⑦ 해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V	
	⑧ 해법을 설명할 수 있는가?		V	

• 아 - 아(아는 것을 아는) 단계

질문		그렇다	모르겠다	아니다
①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가 충분한 상태인가?		V		
②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V		
틀린 문제	③ 원인을 이해하고 있는가?	V		
	④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가?	V		
	⑤ 해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V		
	⑥ 해법을 설명할 수 있는가?	V		
맞힌 문제	⑦ 해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V		
	⑧ 해법을 설명할 수 있는가?	V		

• 아 - 모(아는 것을 모르는) 단계

질문		그렇다	모르겠다	아니다
①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가 충분한 상태인가?		V		
②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V		
틀린 문제	③ 원인을 이해하고 있는가?	V		
	④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가?		V	
	⑤ 해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V		
	⑥ 해법을 설명할 수 있는가?		V	
맞힌 문제	⑦ 해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V		
	⑧ 해법을 설명할 수 있는가?		V	

## IV. PSAT 정복 단계별 공부법

### 1. 모-모(모르는 것을 모르는) 단계

#### 1) 전체적인 공부 방향

‘모-모 단계’의 수험생들은 이제 막 PSAT에 입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문제를 바로 푸는 것보다는 PSAT가 어떤 시험인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좋다. PSAT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무엇이며 평가 요소와 문제 유형은 어떤지 등을 다소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PSAT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묻는 시험이 아니다. 물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전지식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보다는 제시된 자료나 조건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새로운 상황에 잘 응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2) 문제해결 과정별 추천 공부법

첫째, ‘문제 인지’ 단계에서 발문 및 자료, 지문 등을 꼼꼼히 읽는 습관을 기른다. 이때 사소한 내용을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항상 이해한 내용과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구분하도록 한다. 내용을 이해하였는지의 판단 기준은 해당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면 된다.

둘째, ‘조건 이해’ 단계에서 제시문이나 표, 그림, 수식, 단서 등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시문의 경우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락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좋다. 여러 조건이 제시되었다면 자료에 제시된 조건은 몇 가지이며, 각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외 사항 등을 정리해야 한다.

셋째, ‘이론 탐색’ 단계에서 꼭 필요한 이론이 있는지 살펴보고 해당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정리해둔다. 단, 문제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면 이론부터 먼저 찾기보다는 문제 이해에 좀 더 시간을 들이는 편이 좋다. 문제 이해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긴 경우에 한해서만 관련 이론을 정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넷째, ‘조건 적용’ 단계에서 자료에 제시된 여러 조건들이 적용되는 상황을 파악한다. 또한 예외 규칙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연결하여 해석해본다. 만약 해석이 어려운 내용이 발견된다면 해당 문제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정리하여 따로 스크랩해둔다.

다섯째, ‘정답 도출’ 단계에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맞게 찾아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옳은/옳지 않은’을 반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발문에 제시된 중요한 단서를 놓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자주 하는 실수가 발견된다면 그 실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 모-모 단계 공부법

- PSAT 시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
- 지식의 양보다 응용력 중심으로 공부

#### 문제 인지

- 발문 및 자료, 지문 등 꼼꼼히 읽기
- 이해한 내용과 이해하지 못한 내용 구분 (설명 여부로 판단)
-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히 이해

#### 조건 이해

- 제시문은 단락별로 주요 내용 요약
- 조건의 가짓수와 각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예외 사항 정리

#### 이론 탐색

- 문제 이해가 충분한 경우: 필요한 이론과 관련된 내용 정리
- 문제 이해가 부족한 경우: 문제 이해에 좀 더 집중
- 조건들이 적용되는 상황 및 예외 규칙 여부 확인

#### 조건 적용

- 구체적인 사례와 연결하여 해석
- 어려운 내용은 정리하여 따로 스크랩

#### 정답 도출

- 정답을 맞게 찾는지, ‘옳은/옳지 않은’ 해석 맞게 했는지 확인
- 발문에 제시된 중요한 단서 주의, 자주 하는 실수 막기

**모 - 아 단계 공부법**

- 아-아 단계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공부
- 모르는 것이 많다고 포기하지 말기

**2. 모 - 아(모르는 것을 아는) 단계**

1) 전체적인 공부 방향

‘모 - 아 단계’의 수험생들이라면 PSAT 문제에 점차 적응해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 이해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메타인지 수준도 점차 높아짐에 따라 PSAT 실력도 부쩍 향상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 단계(아-아 단계)를 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하는 것이 좋다.

모르는 것을 알아갈수록 지식욕은 높아지기도 하지만, 모르는 것이 많아질수록 학습 의지는 반대로 떨어지기도 한다. 노력한다고 극복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에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PSAT는 재능보다는 노력이 좌우하는 시험이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면 분명히 성과를 거둘 수 있다.

2) 문제해결 과정별 추천 공부법

첫째, ‘문제 인지’ 단계에서 발문 및 자료, 지문 중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확인한다. 문제를 틀리는 원인 중 대부분은 문제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문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건 이해’ 단계에서 제시문이나 표, 그림, 수식, 단서 등 제시된 자료 중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 그 원인과 해결책을 분석한다. 특히 자료에 제시된 조건 중 놓친 예외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해둔다.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주 하는 실수 유형을 파악해야 한다.

셋째, ‘이론 탐색’ 단계에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론이 있다면 이를 잘 정리해놓은 뒤에 시간 되는 대로 자주 숙지하도록 한다. 이론 정리는 굳이 많은 분량을 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정리하면 된다. 만약 시간 여유가 있다면 유사 기출문제까지 함께 스크랩해두면 더욱 좋다.

넷째, ‘조건 적용’ 단계에서 제시된 자료 및 조건을 사례에 적용함에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을 찾아 그 원인을 분석한다. 해결책까지 찾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는 법이다. 해결책부터 먼저 찾으려 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인지 확실하게 파악한 뒤에 해결책을 찾거나 조언을 구하도록 한다.

다섯째, ‘정답 도출’ 단계에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맞게 찾아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옳은/옳지 않은’을 반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발문에 제시된 중요한 단서를 놓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자주 하는 실수가 발견된다면 그 실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b>문제 인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문 및 자료, 지문 중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해보기</li> <li>- 문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li> </ul>
<b>조건 이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된 자료 중 이해하지 못한 부분의 원인 및 해결책 분석</li> <li>- 조건 중 놓친 예외 사항이 있을 경우 확실하게 정리</li> <li>- 자료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유형 파악</li> </ul>
<b>이론 탐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숙하지 않은 이론 잘 정리하여 자주 숙지</li> <li>-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정리</li> <li>- 시간 여유가 있다면 유사 기출문제까지 함께 스크랩</li> </ul>
<b>조건 적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및 조건을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 원인 분석</li> <li>- 해결책 먼저 찾지 말고 원인부터 자세하게 파악할 것</li> <li>-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뒤에 해결책을 찾거나 조언 구할 것</li> </ul>
<b>정답 도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답을 맞게 찾는지, ‘옳은/옳지 않은’ 해석 맞게 했는지 확인</li> <li>- 발문에 제시된 중요한 단서 주의, 자주 하는 실수 막기</li> </ul>

3. 아-아(아는 것을 아는) 단계

아-아 단계 공부법

- 풀이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 문제 풀이법 및 접근법 정리하기

1) 전체적인 공부 방향

PSAT 정복 단계별 특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아 단계'까지 도달했다면 PSAT 점수는 거의 합격권에 도달한다. 이 단계의 수험생들은 풀어서 맞힌 문제뿐만 아니라 틀린 문제에 대해서도 각각의 풀이 과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자신만의 문제 풀이법 및 접근법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기도 한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아-아 단계'의 수험생들은 실전에서도 고득점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PSAT는 시험 당일의 컨디션을 비롯하여 이런저런 변수가 많은 시험이다. 따라서 거의 합격권에 도달했다고 느끼더라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되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2) 문제해결 과정별 추천 공부법

첫째, '문제 인지' 단계에서 발문 및 자료, 지문 등을 대충 훑어보더라도 문제 유형 및 접근법을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 이유는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려면 풀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유형별 문제 접근 요령을 매뉴얼로 미리 만들어 꾸준히 습득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둘째, '조건 이해' 단계에서 해석하기 까다로운 자료들을 담고 있는 문제들만 모아 빠르게 자료를 해석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급상승한다. 따라서 자료를 빨리 해석할수록 문제 푸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자료 해석 속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셋째, '이론 탐색' 단계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론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숙지해야 한다. 실전에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아무도 모르므로 문제 내용에 대한 대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나마 대비가 가능한 부분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나 이론 등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준비를 확실하게 해주어야 한다.

넷째, '조건 적용' 단계에서는 어떤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여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한다. 특히 틀린 문제의 경우 어느 부분을 잘못 이해했고 어떻게 이해해야 올바른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훈련을 꾸준히 반복해야 처음 보는 낯선 문제라도 당황하지 않고 풀이법을 찾아나갈 수 있다.

다섯째, '정답 도출' 단계에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맞게 찾아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옳은/옳지 않은'을 반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발문에 제시된 중요한 단서를 놓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자주 하는 실수가 발견된다면 그 실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b>문제 인지</b>	- 발문 및 자료, 지문만 보아도 접근법을 떠올릴 수 있도록 대비 - 문제별 접근 요령을 매뉴얼로 미리 만들어 꾸준히 습득
<b>조건 이해</b>	- 해석하기 까다로운 문제들만 모아 자료 해석하는 방법 훈련 - 자료 해석 속도를 높여 문제 푸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 -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론 완벽하게 숙지
<b>이론 탐색</b>	- 문제 내용에 대한 대비는 사실상 불가능 -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나 이론 확실하게 준비
<b>조건 적용</b>	- 조건 적용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 - 틀린 문제의 경우 원인과 해결책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 - 처음 보는 낯선 문제도 당황하지 않고 풀이법 찾는 것이 목표
<b>정답 도출</b>	- 정답을 맞게 찾는지, '옳은/옳지 않은' 해석 맞게 했는지 확인 - 발문에 제시된 중요한 단서 주의, 자주 하는 실수 막기

**아 - 모 단계 공부법**

-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기
- 쉽게 느껴진다고 방심하지 말기

**4. 아 - 모(아는 것을 모르는) 단계**

1) 전체적인 공부 방향

‘아 - 모 단계’까지 이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문제 푸는 감각이 월등하여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Case 1) 스스로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둘째,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여 풀다 보니 문제에 지나치게 익숙해진 경우(Case 2)에도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다.

Case 1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Case 2라면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Case 1의 수험생들보다는 Case 2의 수험생들이 문제 적응도가 현저하게 더 낮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사전 준비를 소홀히 할 경우 실전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2) 문제해결 과정별 추천 공부법

첫째, ‘문제 인지’ 단계에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특히 이미 한번 풀어본 문제일수록 풀이 방법을 이미 암기하고서 기계적으로 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 - 아 단계’ 공부법에서 제시한 대로 유형별 문제 접근 요령을 매뉴얼로 미리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조건 이해’ 단계에서 직관적으로 풀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기른다. 특히 자주 봤던 문제의 경우 대충 보고 넘기는 것보다는 새로 풀어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번 같은 순서나 방식대로 조건을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보면 좋다.

셋째, ‘이론 탐색’ 단계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론을 제대로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 특정 도구나 이론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얼마나 빨리 떠올리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빨리 떠올릴수록 문제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론은 키워드만 있어도 관련 내용이 떠오르도록 준비해야 한다.

넷째, ‘조건 적용’ 단계에서도 앞서 제시한 ‘아 - 아 단계’ 공부법에 따라 어떤 조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한다. 틀린 문제가 있다면 이를 유형별로 모아 자신만의 오답 경향을 분석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오답 경향을 분석하여 오답 노트로 남겨두면 실전을 앞두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 ‘정답 도출’ 단계에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맞게 찾아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옳은/옳지 않은’을 반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발문에 제시된 중요한 단서를 놓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자주 하는 실수가 발견된다면 그 실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b>문제 인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쉽게 이해한 문제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li> <li>- 문제별 접근 요령을 매뉴얼로 미리 만들어 꾸준히 습득</li> </ul>
<b>조건 이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관적으로 풀고 넘어가는 부분 꼼꼼하게 확인</li> <li>- 자주 본 문제의 경우 새로 풀어본다는 생각으로 접근</li> <li>- 다른 방법으로 주어진 조건을 이해할 수는 없는지 연구</li> </ul>
<b>이론 탐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론 완벽하게 숙지</li> <li>- 키워드만 보이더라도 관련 이론이 떠오르도록 준비</li> </ul>
<b>조건 적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 적용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li> <li>- 틀린 문제의 경우 유형별로 모아 자신만의 오답 경향 분석</li> <li>- 오답 경향을 오답 노트로 정리하여 실전 직전에 활용</li> </ul>
<b>정답 도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답을 맞게 찾는지, ‘옳은/옳지 않은’ 해석 맞게 했는지 확인</li> <li>- 발문에 제시된 중요한 단서 주의, 자주 하는 실수 막기</li> </ul>